



정성을 다하는 인쇄의 전당 ‘성준인쇄’ “인쇄는 물과의 싸움 … 이기기 위해선 꼼꼼한 관리가 최선”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인현동에 위치한 성준인쇄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96년에 설립된 성준인쇄(대표 김성섭)는 시노하라 4색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정성을 다하는 인쇄의 전당’을 모토로 상업인쇄 및 관공서 인쇄물을 제작·납품하고 있으며, 하청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광인쇄(대표 여성연)와 사무실과 인쇄사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섭 대표는 “유광인쇄 여성연 대표와는 25년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었다. 여성연 대표는 비자이아에서, 나는 그 옆의 인쇄사인 유창인쇄에서 근무했다. 유창인쇄는 구조가 특이해 비자이아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비자이아와 유창인쇄 직원들은 거의 한 회사 직원들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둘 다 각자의 회사를 퇴사하고 인연이 잠시 끊어지게 됐다. 같은 층무로에 있었지만 10여년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다시 소식을 듣게 됐고, 그것이 인연이 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 디자인, 소부, 인쇄시설 등을 갖춘 유성인쇄 여성연 대표의 도움으로 인현동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꼼꼼한 인쇄기 관리가 최고 경쟁력

1983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올라온 김성섭 사장은 양평동에 있는 동성인쇄에서 인쇄를 시작했다. 이후 유창인쇄, 포룸인쇄 등에서 인쇄 실무를 담당하다 1996년 김성섭 사장의 ‘성’과 아들 태준의 ‘준’을 따 ‘성준인쇄’를 설립했다.

처음 입사했던 ‘동성인쇄’는 2도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4도 인쇄물 작업이 많았다. 지금도 4도 인쇄기로 작업해도 펼침면의 색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25년 전에도 2도 인쇄기로 펼침면 색을 맞춰야 하는 고급인쇄물이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때 작업했던 강도 높은 인쇄작업이 인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30여년 동안 인쇄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인쇄기계 정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쇄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다. 그래서 수시로 기계를 점검하고, 청소작업도 꼼꼼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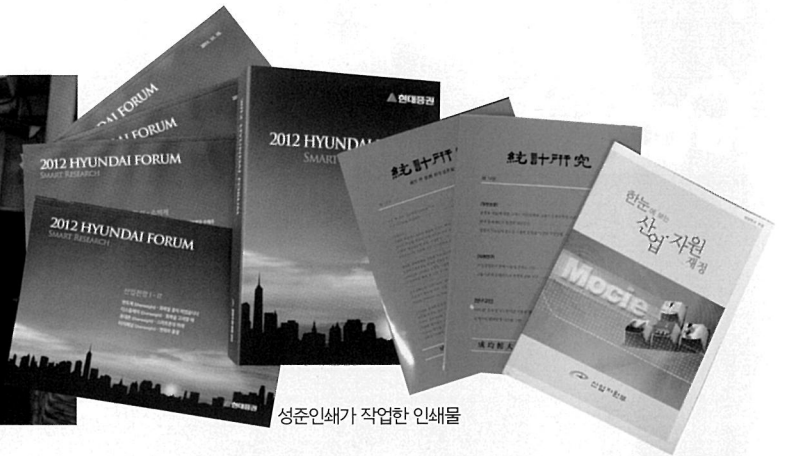
김성섭 대표는 “인쇄는 물과의 전쟁이다. 물이 많으면 인쇄 뒷문음, 광택 저하, 건조시간 증가 등 모든 인쇄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반면 물이 적으면 요그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계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기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생존 위해 전력

중구 지역에 밀집해 있는 소규모 인쇄사들은 현재 인쇄물 작업단가 하락, 인쇄물량 축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준인쇄 역시 마찬가지다. 하청 위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시노하라 4색기



성준인쇄가 작업한 인쇄물

작업 인쇄물이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이 많다. 김성섭 대표는 “인쇄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고민이 많다. 책자와 상업인쇄시장이 줄고 있어 우리 회사로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인쇄인을 위한 교육이라면 제일 먼저 찾아가 듣고 있다. 정보가 있어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인쇄조합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진행한 CEO경영대학을 1기로 수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CEO경영대학에서는 의식개선, 기업가정신 및 성공전략, 판로방안, 세무회계 작업시 안전 사항 등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11일에는 전북인쇄전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인쇄전자’ 전망에 대해 들어보기도 했다. 김성섭 대표는 “지금 우리처럼 소규모 인쇄사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 즉 생존 자체가

목표일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인쇄전자처럼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인쇄전자는 오프셋인쇄와는 아예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인쇄라는 말바탕은 같다고 생각한다. 전북인쇄전자센터에서 6개월 코스로 나노인쇄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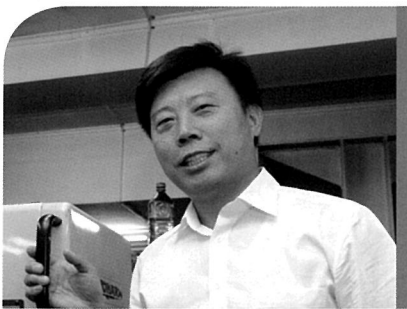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47길 26-5(인현동1가)

전화 | 02-2277-3269 팩스 | 02-2269-5329

광성기획인쇄 연혁

- 1996년 성준인쇄 설립
- 2002년 아끼아마 4색 인쇄기 도입
- 2005년 중구 인현동으로 회사 이전 / 시노하라 4색 인쇄기 도입

미니인터뷰



성준인쇄 김성섭 대표

“다른 분야 도전 위해 교육·세미나 수강”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동성인쇄에서 인쇄를 시작했다. 1980년대 당시의 인쇄사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그래서 직원 3명과 함께 1987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1989년 105명의 인쇄인과 총파업을 시작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총파업은 100일 가까이 진행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인원도 점점

줄어들어나중에는 14명만 남았다. 그때가 기억에 남는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여파는 지속됐다.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인쇄사에는 입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규모 인쇄사가 몰려있는 총무로에 들어오게 됐다.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현재 총무로 인쇄인을 위한 대표적인 모임으로 남인회와 정인회가 있는데, 정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0여명의 인쇄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봄·가을을 부부동반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평구청 유관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회장직을 맡아 매월 20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평경찰서 청소년육성회에서도 운영위원으로 13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출판과 상업인쇄는 포화상태에 있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분야로의 도전을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들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